

Session 1 Overview of David's Life (1 Sam. 13:14)

제 1 장 다윗의 삶에 대한 개관 (삼상 13:14)

I. DAVID: A WITNESS OR MODEL FOR GOD'S PEOPLE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델, 또는 증인

- A. David is a picture of what God wants to release by the Spirit on the end-time church. He is a model for faith and obedience and for a Church that loves, worships, and wars in the Spirit.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지막 때 교회 위에 봇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믿음과 순종의 모델이며, 교회가 사랑하고 예배하며,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의 모델이 된다.

³*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the sure mercies of David. ⁴Indeed I have given him as a witness [model] to the people, a leader and commander for the people. (Isa. 55:3-4)*

³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 [모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사 55:3-4)

¹⁷*Show me a sign [model] for good...because You, LORD, have helped me... (Ps. 86:17)*

¹⁷ 은총의 표적[모델]을 내게 보이소서 ...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돋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 86:17)

- B. David's obedience and ministry is a “standard” of what God is seeking to establish in the earth.

다윗의 순종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자 하는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¹⁵*I will give you shepherds according to My heart, who will feed you with...understanding. (Jer. 3:15)*

¹⁵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렘 3:15)

²⁵*You promised...David, saying, “You shall not fail to have a man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only if your sons...walk before Me as you have walked before Me.” (1 Kgs. 8:25)*

²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 (왕상 8:25)

⁸*In that day the LORD will defe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one who is feeble among them in that day shall be like David... (Zech. 12:8)*

⁸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 (슥 12:8)

II. HOW WE WILL APPROACH THIS COURSE

이 코스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 A. **The biblical story:** to connect David's life to what happened in his generation.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make one familiar with the life of David so they might be equipped to read it over and over with a spirit of devotion. There is more scripture on David than any other person besides Jesus.

성경의 스토리: 이는 다윗의 삶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과 연결시키기 위함이다. 이 코스의 목적은 이 코스를 듣는 사람들이 다윗의 삶에 대해 익숙해지게 되어 열심으로 이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돋기 위해서이다. 성경의 인물 중,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에 대한 구절이 제일 많다.

- B. **David as type of Christ:** No one in the Scripture provides a greater picture of the ministry of Jesus.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도 다윗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

- C. **Leadership lessons:** In seeing various episodes of his life as recorded in 1 & 2 Samuel and 1 Chronicles, we gain insight into how God raises up leaders and how leaders are to respond to Him.

리더십 수업: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에 기록된 그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를 세우시며, 리더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

- D. **David's heart response to God:** We want to respond to God in the way that David did in times of pressure, failure, and success and in diligently pursuing God in all the changing seasons of our life.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마음의 응답: 우리는 다윗이 어려움과 실패의 때에, 그리고 성공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갔던 것처럼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시즌의 변화 안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추구해나가기를 원한다.

- E. David was a student of God's beauty—His glory (splendor), heart (emotions), wisdom, power, etc.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학생이었다. 그분의 영광 (광채), 마음 (감정들), 지혜, 권능 등

One thing I have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Ps 27:4)

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1. What David saw about **God's heart:** David was a “theologian of God's beauty and emotions”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감정들에 대한 신학자”였다.
2. What David saw about **himself** in God's grace: as one delighted in by God (Ps. 18:19, 35)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시 18:19, 35)
3. What David saw about **others** in God's grace: excellent ones in whom God delights (Ps. 16:3)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들 (시 16:3)

4. What David saw in *circumstances*: how he responded to pressure, failure, and success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함: 그가 어려움과 실패, 성공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III. MORE INFORMATION ON DAVID

다윗에 대한 추가 정보들

- A. The life of David is a dramatic and inspiring story, with heroic virtue, scandal, power, etc. It is a must-read. The Bible tells us more about David's life than any other except Jesus. The story of what happened *in David's circumstances* is found 1 and 2 Samuel (beginning in 1 Samuel 16), while 1 Chronicles tells the same story in an abbreviated way. The dramatic account of what happened *in David's heart* is found in the book of Psalms (he authored about 80 psalms; some say more).

다윗의 삶은 영웅적인 부분, 또 추문과 권력 등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극적이고 영감을 주는 스토리이다. 이는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부분이다.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의 삶보다 다윗의 삶에 대해 많이 얘기해주고 있다. **다윗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의 스토리는 사무엘 상/하 (삼상 16장에서 시작)에서 볼 수 있고, 역대상은 동일한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다윗의 마음에 일어난 극적인 부분들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80 개의 시편을 지었다. 어떤 이는 그가 더 많이 지었다고 말하곤 한다).

- B. Three prophets are prominent in David's life: **Samuel** was much older than David, **Gad** was closer to David's age (with him in the wilderness years), and **Nathan** who was much younger than David.

다윗의 삶에 있었던 세 명의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갓**은 다윗과 비슷한 나이였고 (광야의 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음), **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어렸다.

- C. David was the first “millennial theologian” in the Scripture, with insight into the Millennium.

다윗은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천년왕국 신학자”였고, 천년 왕국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 D. The historical context (approximate dates) of David's life.

다윗의 삶의 역사적인 배경 (대략적인 날짜)

4000 BC Adam and Eve

2000 BC Abraham

1400 BC Moses

1000 BC David

931 BC Civil war: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separated from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900 BC Elijah and Elisha

721 BC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destroyed by Assyrians

586 BC Jerusalem destroyed, followed by Israel's 70 years of captivity in Babylon (606-536 BC)

536 BC The Jews return to Jerusalem and start to rebuild the temple

4000 BC 아담과 하와

2000 BC 아브라함

1400 BC 모세

1000 BC 다윗

931 BC 내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됨

- 900 BC 엘리야와 엘리사
721 BC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함
586 BC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바벨론 70 년 포로기가 시작됨 (BC 606-536)
536 BC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함

IV. DAVID: A MAN AFTER GOD'S HEART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 A. In the first description that the Lord gave of David through Samuel to King Saul (1 Sam. 13:14), David was called “a man after God’s own heart” while yet in his teens. God knew the seeds that were in David’s heart. Moreover, the Lord knew the best journey for those seeds to mature in him.

주님이 다윗에 대해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설명하신 그 첫 번째는 (삼상 13:14), 다윗이 아직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씨앗에 대해 알고 계셨으며,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알고 계셨다.

¹⁴The LORD has sought for Himself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the LORD has commanded him to be commander [leader] over His people... (1 Sam. 13:14)

¹⁴ ...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상 13:14)

1. *To obey the commands of God’s heart:* He set his heart to obey even after his failures.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명령들에 순종함: 그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2. *To study the emotions of God’s heart:* He focused on understanding God’s emotions.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연구함: 그는 하나님의 감정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3. *To contend for the purpose of God’s heart:* to seek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for your life and generation. Find out what God is doing in your generation and throw yourself into it. God testified of David that he did “all” of God’s will and served His purpose (Acts 13:22, 36).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목적을 위해 싸워나감: 당신의 삶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뤄지도록 추구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내며, 이것에 당신의 삶을 던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으며, 그분의 목적을 섬겼던 자라고 증언하셨다. (행 13:22, 36).

²²I have found David...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Acts 13:22)

²² ...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행 13:22)

³⁶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Acts 13:36, NAS)

³⁶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 (행 13:36)

- B. David’s primary identity (his sense of value and success) was established in who he was in his relationship with God as expressed in obedient love and meekness toward people. He measured the success of his life in context to how much he grew in grace to walk in love and meekness.

다윗의 주요 정체성은 (그의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근간을 두고 세워졌으며, 이는 순종적인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삶의 성공을 측정하되, 그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사랑과 온유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근거로 측정했다.

C. David's obedience, values, and skills as emphasized in the Scripture:

다윗의 순종, 가치관, 그리고 공교함이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

1. **Seeking God:** He longed to worship God and see His beauty (Ps 27:4; 18:1; 31:23; 36:8).
하나님을 구함: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갈망했다 (시 27:4; 18:1; 31:23; 36:8)
2. **Obedient love:** He had a deep resolve to love and obey God. He declared to God, “I love you” (Ps. 18:1). He is the only man who has that declaration specifically recorded in the Scripture.
순종적인 사랑: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깊은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선포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하다.
3. **Confidence in mercy:** He returned to God after his failure (Ps. 13:5; 18:19; 32; 38; 51; 69).
궁휼에 대한 확신: 그는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왔다 (시 13:5; 18:19; 32; 38; 51; 69)
4. **Confidence in sovereignty:** God was his source of protection, promotion, and provision.
주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며, 높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었다.
5. **Generous leadership style:** He showed kindness to his friends, co-workers, and enemies. He struggled with discouragement, yet we see no bitterness towards those who wronged him.
관대한 리더십 스타일: 그는 자신의 친구들, 동역자, 그리고 대적에게도 자비롭게 대했다. 그는 낙심될 때에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그가 그에게 잘못 대하는 이들을 향해 아무런 쓴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6. **Zealous warrior:** He was a courageous man of war in pursuit of driving out God's enemies.
열심을 가진 전사: 그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몰아내는 전쟁에서 용맹한 자였다.
7. **Valued the Spirit's ministry:** He did powerful exploits and functioned as a prophet.
성령님의 사역을 존중함: 그는 강력한 일들을 행했으며,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8. **Fasted lifestyle:** He was committed to prayer, fasting, the Scriptures (Ps. 19:7-11; 35:13; 69:7-12; 109:24; 145:1-21), and to building God's house (2 Chr. 6:8; Ps. 132).
금식의 삶: 그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에 헌신되어 있었으며 (시 19:7-11; 35:13; 69:7-12; 109:24; 145:1-21),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에 헌신되어 있었다 (대하 6:8; 시 132 편).
9. **Meekness and integrity:** He lived with a servant spirit and “kept his word” even in private.
온유함과 진실함: 그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약속을 지켰다.”
10. **Prudent in speech:** He spoke with humility and godly wisdom.
신중한 언변: 그는 겸손함과 경건한 지혜를 가지고 말했다.

V. REJECTION OF SAUL AS THE CONTEXT FOR DAVID'S TRAINING TO BE KING

다윗이 왕으로 훈련되는 배경, 사울의 거절

- A. Saul is rejected as king related to his sin at Gilgal (1 Sam. 13) and with the Amalekites (1 Sam. 15). David and Saul are prototypes of good and bad leadership—they are meant to be in contrast. Saul's sin at Gilgal (1 Sam. 13) was in functioning in the role of a priest in disobedience to God.

사울은 길갈에서 지은 죄와 (삼상 13 장) 아멜렉과 관련하여 지은 죄 (삼상 15 장)로 인해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 다윗과 사울은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며, 이 둘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울이 길갈에서 지은 죄는 (삼상 13 장)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것이었다.

⁸“*Go down before me to Gilgal...Seven days you shall wait, till I come to you...*” (1 Sam. 10:8)

⁸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삼상 10:8)

⁴...*Saul attacked a garrison of the Philistines...the people were called together to Saul at Gilgal.* ⁵*Then the Philistines gathered together to fight with Israel...* ⁶*The men of Israel saw that they were in danger...* ⁸*Then he [Saul] waited seven days...but Samuel did not come to Gilgal...*

⁹*Saul said, “Bring a burnt offering...” he offered the burnt offering.* (1 Sam. 13:4-9)

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 그 백성 이 길갈로 모녀 사울을 따르니라 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 ⁶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 ⁸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 ⁹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삼상 13:4-9)

- B. When the enemy gathers and the people scatter, Saul does not obey the Lord, but yields to pressure.

사울은 적들이 모여들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복했다.

¹⁰*It happened, as soon as he had finished presenting the burnt offering, that Samuel came...* ¹¹*And Samuel said, “What have you done?” Saul said, “When I saw that the people were scattered from me, and that you did not come within the days appointed, and that the Philistines gathered together at Michmash...¹²Therefore I felt compelled, and offered a burnt offering.”*

¹³*Samuel said to Saul, “You have done foolishly. You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your God...¹⁴But now your kingdom shall not continue. The LORD has sought for Himself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the LORD has commanded him to be commander over His people, because you have not kept what the LORD commanded you.”* (1 Sam. 13:10-14)

¹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 ¹¹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¹² 이에 내가 ...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¹³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 ¹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상 13:10-14)

- C. Saul's sin included serious violations of God's commands related to the priestly ministry. Only priests were allowed to offer priestly sacrifices, and they were to offer them in ways specifically prescribed by the Lord (Lev. 6:8-13). To violate this was a sin against God's holiness. King Uzziah was struck with leprosy for this (2 Chr. 26:19). Saul sought the people's favor more than obedience to God. He was the kind of king who disregarded God's commands when he came under pressure.

사울의 죄는 제사장 사역과 연관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도 포함하고 있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이들은 주님이 명하신 특정한 방법으로 이를 드렸어야 했다(레 6:8-13). 이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웃시야 왕은 이 일로 인해 문동병이 걸렸다(대하 26:19).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시는 왕이었다.

- D. Saul's sin with the Amalekites (1 Sam. 15) was in failing to obey God's command to execute judgment on God's enemies (Amalekites). Saul was not zealous for that which God called sacred.

사울이 아말렉과 연관하여 지은 죄(삼상 15 장)는 하나님의 대적(아멜렉 족속)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명령에 순종하기 않은 것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²*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will punish Amalek for what he did to Israel, how he ambushed him on the way when he came up from Egypt. ³Now go and attack Amalek, and utterly destroy all that they have, and do not spare them. But kill both man and woman, infant and nursing child, ox and sheep, camel and donkey.” ... ⁷Saul attacked the Amalekites... ⁸He also took Agag king of the Amalekites alive, and utterly destroyed all the people with the edge of the sword. ⁹But Saul and the people spared Agag and the best of the sheep, the oxen, the fatlings, the lambs, and all that was good...but everything...worthless, that they utterly destroyed. (1 Sam. 15:2-9)*

²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³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 ⁷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⁹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삼상 15:2-9)

¹⁰*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Samuel, saying, ¹¹“I greatly regret that I have set up Saul as king, for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¹³Then Samuel went to Saul, and Saul said to him, “Blessed are you of the LORD! I have performed the commandment of the LORD.” ¹⁴But Samuel said, “What then is this bleating of the sheep in my ears...?” ¹⁵Saul said, “They have brought them from the Amalekites; for the people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the oxen, to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¹⁶Then Samuel said to Saul, “Be quiet! And I will tell you what the LORD said to me last night.” And he said to him, “Speak on.” ¹⁷So Samuel said, “When you were little in your own eyes...did not the LORD anoint you king over Israel? ¹⁸Now the LORD sent you on a mission, and said, ‘Go, and utterly destroy the sinners, the Amalekites...’ ¹⁹Why then did you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Why did you swoop down on the spoil, and do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²⁰And Saul said to Samuel, “But I have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and gone on the mission on which the LORD sent me... ²¹But the people took of the plunder, sheep and oxen, the best of the things...to sacrifice to the LORD...” (1 Sam. 15:10-21)*

¹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¹¹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 ¹³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¹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아니라 ¹⁵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밀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 ¹⁶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¹⁷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¹⁸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밀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¹⁹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²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밀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밀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²¹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15:10-21)

- E. Saul was in rebellion to God, so He looked for a man who was better to replace him. The kingdom was torn from him “today,” yet David did not replace him until about 15 years later. Thus Saul was about 55 years old at that time (he died at age 70). God knew the whole time that He would remove Saul, but He waited until David was ready to rule as a man after God’s heart.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체할 더 나은 이를 찾으셨다. 그의 나라는 “오늘” 그에게서 떨어져나갔지만, 다윗은 15년 이후에나 그를 대체하는 왕이 되었다. 따라서 사울은 당시 약 55살이었다 (그는 70세에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제거하실 것을 항상 예전부터 아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스리도록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²²Samuel said: “Has the LORD as great delight in...sacrifices,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²³For rebellion is as the sin of witchcraft... Because you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He also has rejected you from being king.”

²⁴Saul said to Samuel, “...I have transgressed the commandment of the LORD and your words, because I feared the people and obeyed their voice. ²⁵...Please pardon my sin, and return with me...” ²⁶Samuel said to Saul, “I will not return with you, for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and the LORD has rejected you from being king over Israel”... ²⁸The LORD has torn the kingdom of Israel from you today, and has given it to a neighbor of yours, who is better than you. (1 Sam. 15:22-28)

²²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 ²³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²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²⁵ ...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 ²⁶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 ²⁸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삼상 15:22-28)

- F. Leadership lesson: Saul repented only when caught, but David repented because he offended God.

리더십 교육: 사울은 빨각이 되었을 때에야 회개했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회개했다.